

# 광주시·국방부 군공항 이전 논의

타 지역 연대 특별법 개정 추진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선행돼야  
광주시·전남도 TF도 14일 첫 회의

광주시가 담보 상태인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국방부, 전남도와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 군 공항 이전추진본부는 12일 시청에서 국방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 측은 이전 지역에 군 공항을 건설하고 현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어'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특별 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대구, 수원 군 공항 이전도 비슷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다른 지역과 연대해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예비 후보지를 결정하고도 화

성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수원 군 공항 사례를 들어 이전 후보 지역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우선시하는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시는 또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 공항 이전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구성 합의한 태스크포스(TF)도 14일 광주전남 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연다.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그동안 실무지원단에서 구성·운영 방안 논의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전 후보 지자체를 설득할 만한 대안을 도출하는 게 TF의 핵심 과업으로 꼽힌다.  
5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전 사업비와 4500억원으로 책정된 지원 사업비 총액을 늘리고 보조금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해결 과제다. 전남도에선 이전 사업비를

최소 1조원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와 묶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로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전망도 나온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3월 25일 방사광 가속기의 전남 유치에 힘을 모으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실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는 국회의 원 등의 도움을 받아 특별법을 개정하고, 행정적으로는 TF를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에서는 대정부 촉구와 이전 지자체와 공감대를 확산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목포 김원이

### “중산층·서민에 꼭 필요한 일꾼 될 것”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전력  
자영업·소상공인 배려 필요  
국회서 국민위해 싸울땐 싸워야  
민주원칙 지키는 정치인 되겠다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 길에서 필요하다면 싸울 땐 싸우는 정치인이 되겠다.”  
4·15 총선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52·사진) 국회의원 당선인은 1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에 들어선 이래 제민지산(制民之產)이라는 말을 늘 마음에 품고 산다. 국민 생업이 곧 정치의 근본이어야 한다”며 21대 국회 등원 각오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김 당선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목포의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은데 정부와 정치권의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김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박지원·윤소하 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치겠다. 두 의원님께 목포 의대 및 병원 유지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도 드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실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문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지역사회 선배님들에 의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며 “두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함께 목포 시민의 숙원 사업을 꼭 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 희망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

에서 목포 시민을 위해, 목포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춰 고향에서 그 시작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스승에게 정치를 배웠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인식은,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께는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배웠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에게는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배우며 제 고향 목포 발전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치 풍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민에게 비친 국회 모습은 한심스러울 때가 많았다. 그러나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싸우는 목적은 오로지 국민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열하게 토론하고 토론의 결과에 순응할 줄 아는 기본적인 민주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돼 국회에 쏟아졌는 국민의 한숨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안 도초 출신인 김 당선인은 목포에서 초·중·고교를 다녔다. 성균관대 재학 중 광주 학살 및 5·18책임자처벌 특위 학과위원장과 총학 정책국장을 거쳐 서충현(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목포에서 대법관노동조합위원장, 청년회, 청년노동조합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다. 1996년 서울 성북구청장 7급 수형 비서로 정계에 입문,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쳤다.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보좌관으로 오랜 기간 동행하다 김 의장 사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도우며 서울시 정무부서장과 차관급인 정무부시장까지 올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왼쪽에서 네번째) 전남지사가 12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김한기(췌한양 대표)와 여수 묘도 일원에 ‘동북아 LNG Hub 터미널’ 건설을 위한 1조 3000억 원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전남도-한양, 여수 묘도 ‘LNG터미널 건설’ 협약 체결

2023년까지 1조 3000억 투자  
광양만권 대기질 개선 기대

전남도는 12일 “췌한양과 1조 3000억 원을 투자해 여수 묘도 일원에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을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췌한양은 1단계로 오는 2023년까지 20만㎥급 LNG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장비, 12만 7천 규모의 선박을 댈 수 있는 부두시설을 건립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남동발전(주) 등 5개 발전회사는 LNG터미널 시설 이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여수산단 내 발전·산

업용으로 사용될 석탄연료는 청정 LNG로 대체돼 광양만권 대기질 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수 소연료전지, 냉열을 이용한 저온물류 등 연관산업 유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  
그간 전남도와 여수시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인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을 지원하려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관세청을 방문해 조기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펴왔다.  
이에 힘입어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기업 투자 애로 해소지원 프로젝트에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이 포함, 산업부의 공사

계획 승인으로 이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대규모 투자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 투자심리 회복에 큰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여수시와 함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수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한기(췌한양 대표)와 LNG 터미널 잠재 수요처인 황창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유항열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박형구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김병숙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김병철 한국남부발전(주) 부사장을 비롯 김영록 전남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인권도시 광주, 인권지표 대폭 개선

73개 지표 중 61개 향상

인권도시 광주의 인권지표가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019년 인권지표 개선율”을 분석한 결과 5개 인권지표 영역 가운데 4개 영역이 지난해보다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밝혔다.  
영역별 개선율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영역’이 22.9%였으며, 문화를 향

조하고 연대하는 도시영역 17.8%,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도시영역 5.2%,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영역 2.5%,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영역 5.5% 등이었다.  
세부지표 73개 중 61개가 향상됐다. 이는 2018년 58개보다 3개 증가한 것이다. 반면 하락지표는 전년 14개에서 12개로 2개가 감소했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영

역’에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기준 준수 지수(79.9→86.8점)가 크게 개선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참여율(2.00→2.08%), 자원봉사참여율(8.17→8.50%) 등도 광주형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과 세계수영대회 개최기간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 실현 등에 힘입어 향상됐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영역’에서는 노인 치매 조기 검진 수검률(12.8→29.5%)이 치매안심센터 개소 이후 대폭 향상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항만물류 파트너

**여수광양항만공사**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

## 더불어, 함께 행복을 키우는 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민과 함께 가치있는 행복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수많은 바람들이 만나 다음 세대에 보다 나은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동행하는 글로벌 복합물류항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선도하겠습니다!